

이통3사, LTE 무제한? 품질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따른 속도 저하 피해 우려
기본요금 10만원... 이통사 비슷한 요금제 불만도

LGU+를 시작으로 이동통신 3사 모두 LTE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LTE 무제한 시대'가 개막했다. 3개월 동안 프로모션을 실시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초기 제공량이 소진되며 데이터 속도를 제한한다는 것은 3사가 모두 똑같다.

그러나 트래픽 과증으로 품질이 저하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이통사 3사가 비슷한 요금제를 실시하는 것을 놓고 '생색내기 용' 요금제가 아니냐는 소비자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LTE 무제한, 이통3사 나섰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LGU+와 KT는 지난 25일, 하루 뒤인 26일에는 SKT가 LTE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했다.

LGU+는 31일부터 'LTE 데이터 무한자유 요금제 95·110·130'을 도입한다. 이에 따르면 요금제에 따라 매월 14~24GB(기기바이트)의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소진시 매일 3GB의 데이터를 초과로 지급한다. 이 양을 넘게 되면 속도가 2Mbps로 떨어지게 된다.

KT는 다음달 1일부터 'LTE 950·1100·1300' 요금제를 판매할 예정이다.

14~25GB의 데이터를 소진하면 매일 3GB까지 LTE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점은 LGU+와 같다. 초과 사용분에는 최대 2Mbps 속도의 LTE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31일부터 진행되는 SKT의 'LTE 109' 프로모션도 월 18GB의 기본 제공량에 소진시 하루 3GB를 지급, 데

이터 속도 제한 등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이통사의 LTE 요금책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SKT는 'T끼리 데이터 선물하기'를 다음달부터 실시해 남은 데이터를 아는 사람에게 무료로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LTE 스마트폰 가입자는 최대 2GB(1회당 최대 1GB, 월 2회 가능)의 데이터를 LTE·3G 가입자에게 줄 수 있다.

이통사 3사는 일단 4월말까지 3개월간 가입자를 모집하고 이후에는 네트워크 환경과 요금제 가입자 주이 등을 감안해 가입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LTE 요금제 사용자들을 위해 기본 용량을 초과하면 400k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3사가 모두 도입할 예정이다.

◇LTE 무제한, 누가 쓰나?=LGU+가 필두로 새로운 LTE 요금제가 연달아 발표되면서 갑작스런 LTE 무

제한 요금제 출시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실제 이통사가 선보인 요금제는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을 규정된 '제한' 요금제다. 이에 더해 요금제의 가입이 3개월 한정 프로모션으로 진행돼, 새로 LTE 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라면 문제가 없지만 기존 LTE 가입자는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데이터 트래픽 급증' 문제가 다시 대두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높다. 이통사들은 초기 3G 스마트폰을 출시 할 때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경쟁적으로 출시했다가 트래픽 급증 문제를 야기시켰던 선례가 있었다. 당시 이통사들은 네트워크 증설 등 '제설 꺾이먹기 경쟁'을 치르며 투자대비 손실액이 매우 커졌다.

LTE를 시작할 때 무제한 정책을 도입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통신시장 점유 비율이 낮은

LGU+가 영업정지 기간동안 손실이 예상보다 커 타사의 영업 정지 기간에 발맞춰 그동안 망설이던 LTE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하는 초강수를 냈다는 분석이 있다.

또 트래픽 급증은 주파수 부족 문제와 연결된다. 이통사는 올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할 예정인 1.8GHz(기기허브)와 2.6GHz 대역을 차지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편으로 주파수 부족을 외치고 또 한편으로는 LTE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은 이를 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다.

광주 서구 풍향동에 거주하는 오진석(30)씨는 "기본요금만 10만원에 달하는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할 사람이 과연 많을지 의문"이라면서 "요금제에 관련된 옵션을 더 늘려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삼성전자 '갤럭시 팝' SKT출시

신규로 스마트폰에 가입하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3G 스마트폰이 빠른 속도로 4G LTE폰으로 교체되고 있다. 30일 삼성전자가 젊고 트렌디한 소비자를 겨냥해 SKT를 통해 출시한 '갤럭시 팝(SHV-E220S)'.

PC통신 '나우누리' 추억 속으로

31일 서비스 완전 종료

천리안, 하이텔과 함께 국내 PC통신의 대명사격으로 손꼽히던 '나우누리'가 31일로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한다.

1994년 서비스를 시작한 지 19년 만이다. 이로써 3대 PC통신 가운데 천리안만 남게 됐다.

나우누리는 1990년대 중반까지 하이텔, 천리안 등과 함께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당시 전화선을 이용해 서비스에 연결하고 실명 대신 아이디로 채팅하는 PC통신은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주목받으며 영학나 소설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초고속 인터넷 보급과 함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후,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이 출현하면서 PC통신은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나우누리는 이후 포털 형태로 전환해 명맥을 이어왔으나 사용자 부족으로 끝내 서비스 종료를 맞게 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나우누리 운영업체인 나우SNT는 지난해 12월 서비스 종료 계획을 발표하고 회원들이 데이터 백업과 서비

스이전을 할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두달간 서비스를 무료로 개방했으나 오는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한다.

나우누리의 사이트 폐쇄 소식에 인터넷상에서는 나우누리 동호회원들을 중심으로 '나우누리 살리기' 등의 모임이 개설돼 나우누리를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회사측은 이용자 감소와 수익성 문제로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1999년 설립된 인터넷 커뮤니티 프리챌은 다음달 18일 문을 닫는다. 프리챌은 아바타와 커뮤니티 서비스를 앞세워 2000년대 초 큰 인기를 끌었으나 2002년 서비스 유료화를 단행하면서 싸이월드 등에 밀렸다.

프리챌은 사이트를 통해 "계속되는 경기 악화와 재정난의 악재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며 "2월 18일 자정을 기해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종료되는 서비스는 프리챌 메일, 커뮤니티, 동영상 서비스이며 프리챌 게임과 P2P 서비스인 파일구라는 유지된다. /연합뉴스

빠른 4G LTE, 교체 속도도 빠르다

작년 하반기 44.6%로 확대... 스마트폰 신규 가입 6.9%로 급감

신규로 스마트폰에 가입하는 사람의 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G 스마트폰은 빠른 속도로 4G LTE폰으로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29일 발표한 '2012년 하반기 스마트폰 이용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신규 이용률은 6.9%로 2010년 7월 1차 조사 이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신규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처음 이용한지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1차 조사에서는 73.7%, 2차 68.8%, 3차 47.4%, 4차 36.7%, 5차 19.3%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이번에 한자리 수까지 떨어졌다.

이는 스마트폰 가입자가 이미 3200만(2012년 11월 기준)을 넘어서 어느 정도 수용층족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2100만명의 피처폰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의 복잡한 기능과 고가 단말기 등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교체를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중에서 LTE 스마트폰 이용자는 44.6%으로 상반기에 비해 15.9%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G 스마트폰 이용률은 상반기 71.3%에서 55.4%로 감소했다.

LTE 스마트폰의 확산추세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스마트폰 이용자의 35.9%는 1년 이내에 LTE 스마트폰을 구입·교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41.3%는 LTE 스마트폰 이용을 위해 통신사 변경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방통위는 LTE폰·3G 스마트폰 이용률 추이를 볼 때 올해 안으로 LTE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3G 스마트폰 이용자 수를 뛰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다양한 모바일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66.2%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수시이용(52.7%)이 그 뒤를 이



었다. 스마트폰 일평균 이용시간은 102분으로 전년 동기와 비해 15분 증가했다.

스마트폰으로 소셜네트워크게임(SNG)을 경험한 이용자들도 스마트폰 이용자 79.7%에 달했고 이들의 하루 평균 SNG 이용시간은 54.4분이나 됐다.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37.3%, '보통'은 46.0%로 나타나 '불만족'(16.1%)을 크게 앞질렀다. '단발기 조작 편리성'(51.9%), '단발기 기능 및 성능'(44.9%)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7~26일 기간동안 만 12~59세의 스마트폰 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스마트폰 100배 즐기기

금연 '레드썬'

새해를 맞이해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이 많다. 금연이 자심삼일로 그치지 않게 도움이 되는 앱을 소개한다. 금연의지가 약해졌다면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스모크프리' 앱에서 금연 일수, 절약한 담뱃값을 확인해 떨어지는 의욕을 다시 높여보자. GPS를 통해 가까운 금연 클리닉과 전화번호도 제공한다. '레드썬'으로 유명한 김영국 신구대학 교수의 '금연최면'도 인기다. 담배를 역겨운 물질로 각인시켜주는 최면 방법이 이색적이다.

굿애플에서 제작한 '금연하고 기부하자'는 금연을 주간·월간 단위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차트를 제공한다. 또 흡연이나 금연 횟수를 선택한 후 광고를 터치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한 단체에 기부한다. 아이폰용 '금연다이어리'는 전면에 금연 시간과 건강지수를 제공해 직관적으로 금연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트윗일기'를 통해 금연 중인 사람들과 자기만의 금연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돈에돈에

오천동 오치 사거리와 북부서 사이 오치주공 건너 생활편리점(9,000→8,000)
☎ 062-262-1977

남영사주카페

월산4동 운진각 앞 대창 목욕탕 앞 사단법인 한국예술인협회(궁합·재물·건강·직업·시주·자녀문) 치한전의 여유와 인생의 궁금함
☎ 062-675-6955

참조은오리

삼각동 일곡자구 청석골 골목 팔도 참오리 영농조합법인 직영점
(울금오리전문점)
☎ 062-575-5292

새탁마을

삼각동 삼각그린APT 건너편 플러스 주유소 옆 크리닝·수선전문업체 와이셔츠 900, 정장 1벌 3,500 운동화 3,000, 이불세탁 5,000
☎ 062-575-2737

(주)지호

풍동동 풍암중학교 자연주의 옆 2F 전기공사 통신 소방공사 전문업체 대표 : 최희갑
☎ 062-453-5500

조은대부

용봉동 개인택시 신협 3F(광주북구) 2009-65회 아파트 2~3층 순위추카대출 논밭주택니머지 추카대출 임대APT 특별대출, 아파트주택전세금대출
☎ 062-573-6999

소동섬해물탕

지산동 매일시장 4거리와 봉봉카센터앞 소동섬해물탕, 대형화물, 해물요리, 세고시, 우럭매운탕 양념주물럭, 봉장어, 사대회우침, 키조개, 쭈꾸미 데지고기, 백반 단체 약회영
☎ 062-471-2448

미덕이용원

중흥동 266-1 평화맨션 앞 커트, 면도전문
☎ 010-5599-8826

친절세탁소

황금동 86-1 황금주차장 옆 고급의류세탁전문 (기숙·무스타·세무 등)
☎ 062-234-7369

DDM미즈존(광주본점)

궁동 7-11 김정현 외과 건너 예술의 거리 입구 QAKM 기능성체형 보정의류업체 최초 소자본 창업 경험자 우대
☎ 010-8335-7790

무성당안경

대인동 21 구역 소방서 건너편 각종안경 콘택렌즈 대표 : 김필호
☎ 062-224-6234

은산사주찻집